

傳來民譚, 성인용 교양도서로 출간된다

선인들 삶의 지혜 현대적 재해석...우리것 찾기 바람타고 높은 인기

무릎에 누인 손주에게 들려주던 옛날이야기
 껌으로 인식돼던 우리조상 전래의 민담·야담
 들. 최근들어 그 속에 숨겨진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관심있는 학자·연구자들에 의해
 성인용 교양도서로 집필되어 봄을 일으키고
 있다.

관심높아진 우리의 옛이야기

그동안 선인들의 지혜담은 중국의 고전이나
 외국의 유명한 어록집에 많이 의존해왔던 형
 편. 하지만 최근 일고 있는 우리네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현대를 사는 지혜를 깨우치
 고자 하는 노력은, 박인량의 「수이전」, 이인
 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규보의
 「백운소설」, 강희안의 「양화소록」, 남효온의
 「추강냉화」, 서거정의 「필원잡기」 「골계전」,
 강희맹의 「촌담해이」, 성현의 「용재총화」, 유
 몽인의 「어유야담」 등 고려·조선시대에 널리
 걸친 「패관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우선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패관」들의 창의성과 윤색이 가미되
 어 「기록문학」 속에 정착돼온 것 외에도, 구
 전으로 이어져오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
 주고 공감대를 만들며 전승돼온 「구비문학」을
 「현대의 패관」들이 나름대로 살을 붙여 정리
 한 이야기책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 것.

한양대 최래옥(국어교육과) 교수의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미투) 시리즈
 (전6권)를 비롯해, 깊은샘 출판사 편집부
 에서 엮어낸 이야기야담시리즈 「이사람의 그런
 얘기」 「그사람의 이런 얘기」, 대학강사·문인
 들로 구성된 우리문화탐구회가 향후 마당극,
 영화화, 외국수출 등의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펴낸 「한국인의 삶」시리즈 「산을 잡아 오너
 라」(문화탐구) 「답을 빌려 타고 가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가」(♫) 등은
 예년에 볼 수 없던 기획된 시리즈여서 먼저
 눈에 띈다.

이 외에도 백기완씨의 「우리겨레 위대한 이
 야기」(민족통일) 「장산꽃매 이야기」(우등
 불), 중국 연변에서 우리의 설화·고사·야담
 등을 연구하던 교포 방문주씨의 「꺼리1·2·3」
 (삶과함께), 일전에 나온 「한국의 민담」(최운
 식, 시인사), 「재미있는 이야기꺼리」(김중
 순, 좋은글), 「재미있는 풍류고사 이야기」(박
 우사), 그리고 조선일보지면의 「이규태 칼럼」
 으로 유명한 이규태씨의 「한국인의 삶과 지
 혜」 시리즈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동아

**옛날 이야기쯤으로 인식되던 조상
 전래의 민담·야담들. 최근들어 그
 속에 숨겨진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관심있는 학자·연구자들에 의해
 이야기책으로 꾸며져 교양도서로
 한몫을 하고 있다. 관련 옛 문헌을
 국역하거나 지방으로 다니며 채록한
 이야기들은 저자나 편자들에 의해
 살이 붙고 나름대로의 해석이
 가미되기도 한다.**

출판사),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네」(♫) 등
 이 화제의 책들.

이 가운데 「산을 잡아...」 「답을 빌려...」 등
 의 익살맞은 제목이 붙여져 있는 우리문화탐
 구회의 한국인의 삶 시리즈는 「고전문헌 속에
 잠들어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
 은 민담들을 현대인의 감성과 정서에 맞는 이
 야기」로 다듬은 것이다. 1권에서는 「삶을 밝
 혀주는 지혜로운 옛이야기」를, 2권에는 「사람
 의 길을 일러주는 옛이야기의 인간학」을, 3권
 에는 「재치와 익살이 넘치는 해학과 性的 미
 학」을, 곧 발간될 4권 「기운이 세면 소가 왕
 노릇 할까」에서는 「인간세상에 대한 풍자이야
 기」들이 나누어 실려 있다.

「이사람의 그런 얘기」 「그사람의 이런 얘
 기」 이야기야담 시리즈도 옛사람들의 슬기와
 낭만, 해학과 꿈을 담은 내용구성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두 권 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야기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 특징. 첫째권이
 당시 현존했던 인물들의 지혜로우면서도 우습
 고 감동적인 일화를 중심으로 모은 것이라면,
 둘째권은 갖가지의 인습에 묶여있던 폐쇄사회
 조선조에서 남녀간에 벌어졌던 사랑이야기,
 인연에 얽힌 아름다운 미담 등으로 엮여 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 세종을 깨우친 황희정승
 의 「귀속에서 파랑새」, 무식하나 지혜로써 사
 리밝은 정치를 펼 「무식판서 이문원」, 당돌한
 아들을 둔 덕에 정승집과 사돈을 맺게 된 「명
 함 덕에 얻은 사위」(이상 1권), 말괄량이 외
 동딸을 신부로 데려와 못된 성격을 바로잡아
 준 「지혜로운 남편」, 정혼자가 죽은 사연을
 밝히기 위해 삼십년을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같이 산 끄적하고 애처로운 「삼십년 한을 푸



조상 고유의 민담·야담들을 요즘 독자들이 읽기 좋게 씌어진 옛이야기 책들.

독심」(이상 2권) 등이 그 내용.

최근 화제를 모았던 「꺼리」 전3권도 1권이
 선조들의 생활담 속에 숨어있는 재치와 기지
 를 골라담고, 2권이 선인들의 지고지순한 사
 랑이야기를, 3권이 현대에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이야기를 담은 등 내용구성은 앞
 옛책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상에서 언급된
 이야기들은 책에 따라 옛책속의 이야기를 단
 순히 현대어로 옮겼거나, 거기서 벌어진 소재
 를 뼈대로 저자가 나름대로 살을 붙이고 해석
 도 가미하여 재미와 교훈을 주는 이야기거리
 로 만드는 등 서술의 차이가 일정하게 있다.

국역·채록 등 다양한 경로의 수집

최래옥 교수의 이야기시리즈 「되는 집안...」
 은 앞서의 민담집보다 이야기 소재가 훨씬 구
 체적으로 세분돼 있다. 1권 「이야기로 배우는
 조상들의」 금전지혜, 2권 처세지혜, 3권 가정
 화목, 4권 사랑, 5권 풍자, 6권 초자연 지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리즈는 먼저 어린
 이용 「한국전래동화집」(전5권)으로 나왔다가
 「성인들에게도 읽혀야 할 좋은 내용이 많아」
 다시 씌어졌다. “오래 옛이야기라면 그 안에
 서 지혜를 얻을 수 있거나 내용이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해오는 이
 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수록해둬으로써 전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도록 배려했다”는
 게 저자의 말인데, 시골에서 저자가 직접 채
 록한 이야기들이 구성되고 재미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최운식씨가 펴낸 「한국의 민담」은 우리 민
 담을 찾아 전국을 뒤진 성과물. 연구자들의
 말을 그대로 구어체로 수록했는데 따라서 내

용과악이 어렵거나 생경한 고어 등은 앞에 해
 석을 따로 붙여 두어 구비문학 연구자들에게
 도 요긴하다. 한편, 이규태씨의 「청천 하
 늘...」과 「이내 가슴...」은 흔히 「한국의 정서」
 나 「한국의 전통」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
 은 상당히 왜곡돼 전해지고 있음을 밝혀보인
 다. 그 논증으로 저자는 특유의 해박한 지식을
 펼쳐보이는데, 가령 “한국여성은 단군 이래 장
 님 3년에 벵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여
 인들은 억압만 받으며 살진 않았다. 규중심처
 에서 눈물로만 보낸 게 아니라 신래침학, 서
 생보쌌, 울음레슨, 백상계, 청상계 등 양반이
 면 양반, 상민이면 상민 나름대로 해학과 재
 치가 담긴 해소법으로 그 한을 다스렸다”며 그
 사례를 민담·문헌 등의 이야기로 제시해 보인
 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최근들어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이
 야기들에 대한 관심은 「身土不二」로 표현되는
 사회전반의 「우리것 찾기」 바람과도 관련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우리 고
 유 이야기, 우리 고유의 문화를 더 찾게 끄
 한다(최래옥)는 지적도 있다. 그것은 “한국
 적인 것의 존재가치를 재확인” “우리의 소중한
 정신과 문화를 보전·발전” “우리가 추구
 해야 할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그리는데” 등과
 같은 저자의 변, 편집자의 변에서도 찾을 수
 있다.

— 정혜옥 기자